

목포시, 세계적 수준 친환경선박 메카 실현 박차

선박연료 연구 국비 100억 확보
남향 중심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중소형 여객선 개발
친환경 선박산업 고도화 목표



목포 남향 친환경선박 연구소 조감도.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친환경선박'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차세대 선박연료 암모니아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선박연료 국산화 전환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4건(약 1500억원 규모)을 중심으로 다양한 친환경선박 신기술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목포 남향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 집적화단지를 구축 중에 있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 개발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등이다. 이 사업들은 주관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협업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전기추진 차도선'은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돼 목포 인근 해상에서 실증 운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목포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범 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혼소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대체연료의 안전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실증하기 위해 고안된 세계 최초의 2600톤급 '해상테스트베드(K-GTB)'는 지난해 9월 목포소재 기업에서

용골거치식을 갖고 순조롭게 건조되고 있으며 향후 해상실증 기법과 절차의 국제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중소형 여객선(요트)도 개발되고 있다. 수소연료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에 해상의 풍력과 태양광을 접목해 친환경선박의 고질적 문제였던 연료소모량을 감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밖에도 세계 최대규모(30MW급)의 전기추진시스템 육상시험설비인 LBTS

(Land Based Test Site) 또한 2025년 개발 완료로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나 크루즈, 구축함급 함정까지 다양한 전기-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국산화와 세계시장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할 핵심시설이 5개동이 남향 교육연구구에 들어설 예정이며 2개동(충전시험동, 관제유지보수동)을 이미 준공했고 3개동(연구동, 전력시험동, 국제협력복지동) 또한 지난해 말 착공되어 오는 2025년 본 모습을 갖추게 예정이다.

2025년 말부터는 조선해운분야 유일 정부출연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가 목포로 이전해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친환경선박 전문인력양성과정 '그린 모빌리티' 또한 목포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강소기업 및 연구기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수행한 '친환경선박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산업 클러스터

의 지속적인 확장과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5월에는 산업부에서 공모한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돼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글로벌 조선·해운업계의 Post-LNG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차세대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및 기자재 국산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에 따른 연관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는 이번 사업 확보로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의 R&D 역량강화와 신산업 전환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술보급 및 확산효과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조선산업을 재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시를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친환경선박 산업이 양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건설기계 엔진교체 추가 지원... 11일까지 신청

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추가로 지원한다.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한 엔진이 탑재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로 지원대수는 2~3대이고 엔진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자동차배

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저공해초지신청·건설기계)을 통해 인터넷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차량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열린시정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목원동 자생조직연합이 지난달 26~27일 저소득층 200명에게 삼계탕을 전달했다.

목포시 제공

목원동 자생조직연합, 경로당에 삼계탕 전달

목포시 목원동 자생조직연합(주민자치위원장 임지용)은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난달 26일과 27일 나무포식당에서 경로당 9개소와 저소득층 200명에게 삼계탕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 진행되는 목원동 자생조직연합 삼계탕 나눔 행사는 인삼, 대추 등 특별히 좋은 재료를 엄선해 어르신들의 원기 회복을 도와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자 마련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6일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9개소에 삼계탕을 전달했고 27일에는

목원동 35명의 통장이 저소득층 200가구를 직접 방문해 포장된 삼계탕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진행했다.

임지용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 지치기 쉬운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드시고 기운을 보충해 건강한 여름을 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주 목원동장은 "해마다 경로당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희망찬 목포 만들기에 앞장서주시는 목원동 각 자생 조직과 후원자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옥암동 새마을문고 직원들이 지난달 26일 옥암동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짜장면을 제공했다. 이번 짜장면 나눔 행사는 옥암동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추진됐다.

목포시 제공

옥암동 새마을문고, 지역아동센터 짜장면 나눔 봉사

목포시 옥암동 새마을문고(회장 박정심)는 지난달 26일 옥암동 지역아동센터 2곳의 아동들을 초청해 중식당 초청전에서 짜장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옥암동 새마을문고 회원들의 후원금을 모아

추진됐으며 옥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참석해 70명의 아동들에게 배식 봉사를 함께 펼쳤다.

박정심 옥암동 새마을문고 회장은 "짜장면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지속적으로 짜장면 나눔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문고는 아이들이 밝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미미 옥암동장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준 옥암동 새마을문고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옥암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보건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 주의 당부

목포시보건소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최근 4주 동안 1.7배 증가하면서 지난해 동절기 유행에 이어 올해 다시 유행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감염 초기 두통, 발열,

콧물, 인후통이 나타나고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며 주로 소아,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이 되는 질병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이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사이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실내에서 자주 환기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